

사회

광주 북구선관위 시스템 관리·점검 부실

분류기 고장 6시간 능력 개표

관련직원들 구입시기·내구연한도 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분류기 고장으로 개표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음에도 고장 원인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반축을 사고 있다.

3일 광주시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 14대 가운데 4대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개표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다.

지난 16대 대선(2002년) 당시 첫 도입된 분류기는 PC와 연결돼 투표용지를 스캔한 뒤 이를 데이터로 저장해 후보별 기표를 식별하며 광주에서는 47대를 보유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초 3일 새벽 4시경 개표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6시간 가량 개표 완료가 늦어졌다. 전날 투표함을 연 지 15시간 만이었다.

선관위는 분류기가 고장을 일으키자 관련 기술자에게 수리를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업무가 끝난 동구 개표소에서 분류기 4대를 부랴부랴 공수해오는 등 부산을

떨었다. 특히 개표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기에 대한 점검 미흡은 물론, 전반적인 관리 실패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북구 선관위의 경우 고가의 분류기 14대를 평소 사무실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 소홀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북구 선관위는 분류기를 2002년부터 구입해 왔으나 선거담당 직원조차 내구연한과 구입 시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 선관위 관리계 담당 직원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센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일(개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선관위 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개표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의 큰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시 북구 양산동 KT&G 광주제 조장 감당에서 열린 개표 작업은 선관위 측의 분류기 관리 및 점검 소홀의



광주시 북구 양산동 KT&G 광주제 조장에 마련된 6·2 지방선거 북구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분류기 고장으로 개표사무원들이 3일 오전까지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정도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북구청 소속 한 개표 사무원은 "선관위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표

작업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선거사범 수사 후폭풍

검경, 고발 접수 560여명 속도 낼듯

6·2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 140여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전남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가 3명이나 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또 선거 이후로는 낙선자 측의 고소·고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 후유증마저 예상된다.

경찰도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광주·전남

경찰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각 66명, 1003명 등 모두 1669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17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지난 2일 선거 종료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작업을 본격 재개한다. 현재 경찰은 562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처벌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700건의 불법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광주시선관위는 불법선거 133건을 적발해 16건을 고발하고 9건을 수사의뢰, 108건은 경고 조치했다.

전남도선관위는 같은 기간 567건을 적발해 63건을 고발하고 35건은 수사의뢰, 440건은 경고조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 광고물관리 직원들이 오지 굴다리 인근 교차로에서 6·2 지방선거 홍보에 쓰였던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다.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포대도 만들어져 재활용 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로등 보수업체에서 수년간 '뒤틀'

남구청 공무원 수뢰혐의 영장

광주남부경찰은 3일 가로등 보수공사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년간 돈을 받아 챙긴 광주 남구청 주사 C(4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45분경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앞에서 공공시설 설비업체 직

모(45)씨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청의 가로등 보수공사 업무 등을 담당해온 C씨가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4~5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뇌물액수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트위터의 힘!

진보층·무관심 젊은 세대 투표 이끌어

이외수·노홍철 등 유명인도 적극 참여

광주지역 회사원 김경민(33)씨는 최근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 6·2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주소도 고함인 영암군 영암읍으로 돼 있어 내려가기 불편한 것도 이유였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트위터(www.twitter.com)를 자주 이용하던 김씨는 수일 전부터 '투표에 참여하자. 젊은층이 나라를 바꾸자'라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 차례 올라오자 결국 마음을 바꿔 당일 오전 영암에 내려가 투표를 하고 올라왔다. 김씨는 "트위터를 자주 이용하는데 투표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격려하는 글을 많이 읽고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완패로 평가되는 이번 6·2지방선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가 많이 이용되는 20~30대가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2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지역 등 수도권은 투표율이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4~5%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여당의 압승이 아닌 초박빙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밑바탕에는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일반인이 아닌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사들도 트위터를 적극 이용했다.

16만7000여명의 팔로어가 있는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 투표했다는 글과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외수씨는 "투표 안하고 놀러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썩소를 날리며 쿠파를 말로 한 마디 해 주고 싶다. 투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라며 "투표하고 오신 분들께 축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를"이라고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또 방송인 노홍철, 탤런트 박진희, 맨스그룹 '슈퍼주니어' 김희철 등 연예인들도 투표 사실을 알리는 글 등을 잇달아 올렸다.

이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과 결합한 트위터가 정치에 상대적으로 무심한 젊은 층을 투표소로 이끄는 데 한 몫했고, 이는 지지기반이 상대적으로 젊은 민주당의 선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투표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젊은층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투표율 상승을 불러오면서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나원침 (8038) 김종두



새벽 가정집 절도·폭행 북부경찰, 2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3일 새벽시간대 가정집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이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한 박모(28)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3시20분경 광주시 북구 풍향동 한 주택에 들어가 돼지저금통을 훔치던 중 집주인 김모(여·56)씨에게 발각되자 김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유아 수족구병 '비상'

광주 소아과·아동병원 등에 환자 급증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족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지역 소아과나 아동 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부터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해 3일 현재 전체 환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수족구병 환자의 발생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3일 전국 24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체계 분석결과, 지난달 9~15일 수족구병 환자분율(전체 외래환자 대비 수족구병 환자 비율)이 0.84%(1천116명)로 전주 0.66%(894명)에 이어 증가

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주 4.13%, 충남 1.31%, 울산 1.29% 순이었다.

광주 미래아동병원에는 이날 들어 매일 100~150명의 수족구병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대부분 5세 이하 영·유아여서 치료 기간도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다. 이 밖에 대부분 소아과들도 환자의 20~25% 정도가 수족구병 환자이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번 수족구병은 기본적으로 고열과 발진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39도에 가까운 고열로 입안에 궤양이 발생,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탈진이나 입원하는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다수 입

원 환자들은 1주일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한다.

전문의들은 또 수족구병에 감염된 환자는 전염을 막기 위해 입원이나 집안에서 격리 치료해야 하며, 휴가철에 중국·홍콩·대만 등 수족구병 발생지역을 여행할 경우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도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 전국 3만6000여개 보육시설 및 16개 시·도, 253개 보건소, 소아전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병·의원을 대상으로 수족구병 예방수칙이 담긴 리플렛 10만부를 배포했다.

미래아동병원 김병희 원장은 "수족구병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돌보는 어른들의 손씻기나 영·유아가 사용하는 집기의 청결 등 위생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양성철 광주지방경찰청장 내정

故 이승범 청장 후임

정부는 3일 공석인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영암 출신의 양성철(55)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장을 내정했다.

광주경찰청장 자리는 지난달 25일 이승범 전 청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신임 양 청장은 목포고교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에 투신, 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 서초경찰



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거쳤다.

정부는 또 전북 남원 출신의 유근섭 경찰청 외사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이 성한 분청 감사관을 후임으로 내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유창순 前 총리 별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유창순 전 국무총리가 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18년 평남 안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평양공업대학학과와 미국 헤이스팅스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1982년 15대 총리를 지낸 고인은 1989년 호남석유화학 회장에 취임했고, 그 해부터 1993년까지 제19~20대

전경련 회장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5일 오전 9시. (02)3010-2631

최수중·하희라 부부 세금 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전속계약으로 얻은 수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수중·하희라 씨 부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최씨 부부의 연례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봐야 한다"며 "전속계약금도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

○최씨 부부는 2006년 S사와 34개월간의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총 4억6천만원의 배당금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with a map of Korea, '맹벌 피하기' (Avoid Heatstroke) with a table of temperatures, and '◇주간 날씨' (Daily Weather) with a table of daily forecasts.